Viola Concerto

- □□_

정보

개요
곡명: Viola Concerto
작곡가: William Walton (1902–1983)
장르: 독주 비올라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작곡 시기: 1928–1929년
헌정: Christabel McLaren, Lady Aberconway
세계 초연: 1929년 10월 3일, London Queen’s Hall, Paul Hindemith 독주, Henry Wood Symphony
Orchestra, William Walton 지휘
1961년 개정판 초연: 1962년 1월 18일, Royal Festival Hall, John Coulling 독주,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Sir Malcolm Sargent 지휘
IMSLP: Viola Concerto (Walton, William)

Wikipedia: Viola Concerto (Walton)

William Walton의 《Viola Concerto》는 독주 비올라와 관현악을 위한 3악장 협주곡이다 . 이 글은
1928–1929년에 완성된 원작과 1961년 관현악 개정판을 함께 다루며, Andante comodo, Vivo, con molto
preciso, Allegro moderato 순서로 이어지는 전곡을 기준으로 한다. 첫 악장의 긴 선율, 두 번째 악장의
정밀한 스케르초, 세 번째 악장의 대위적 누적이 하나의 연속된 흐름을 만든다.

출판 정보와 자료

이 작품은 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출판되었다 . 1929년 원판의 full score와 miniature score는 1930
년에 나왔고, 1961년 관현악 개정에 근거한 full score는 1964년에 출판되었다 . Christopher Wellington이
편집한 2002년 William Walton Edition 12는 원판과 개정판을 함께 수록해 두 편성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Geoffrey Pratley의 피아노 축약판과 Lionel Tertis가 편집한 비올라 파트도 1930년과 1964년 OUP
자료에 포함되며, 피아노 축약은 관현악판과 다른 연주 매체다.

Walton Trust가 기록한 자필 자료는 Yale의 Beinecke Library Frederick R. Koch Collection에 있다. 원판
자필 총보는 FRKF 586a, 개정판 자필ㆍ필사 혼합 총보는 FRKF 586b로 분류되며, Royal College of Music
Special Collections에도 MS 4234가 보관되어 있다. 1961년 개정은 새 협주곡을 만든 작업이 아니라
관현악의 밀도와 색채를 조정한 작업이다. 따라서 아래의 편성은 현재 널리 연주되는 개정판을 기준으로 하고,
원판의 차이는 별도로 표시한다.

소요 시간

Walton Trust는 전곡을 약 25분으로 제시한다. 실제 녹음은 판본과 템포, 독주자의 호흡에 따라 약 22 분대부터 30분대까지 차이가 나므로, 공연에서는 대체로 25분 안팎의 곡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악장별로는 Andante comodo가 약 8–9분, Vivo, con molto preciso가 약 4–5분, Allegro moderato가 약 11–13분이다

.

편성

1961년 개정판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독주: 비올라
목관: 플루트 2(한 대는 피콜로 겸함), 오보에,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2(한 대는 베이스 클라리넷
겸함), 바순 2
금관: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타악기: 팀파니
발현악기 : 하프
현악기: 제 1바이올린, 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1929년 원판에는 피콜로와 플루트 2, 오보에 2와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2와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2와 콘트라바순 ,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팀파니, 현악기가 들어간다. 원판에는 하프와 일반 타악기가
없고 저음 목관과 금관이 더 많다. 개정판은 트럼펫을 두 대로 줄이고 튜바와 콘트라바순을 없애는 대신 하프를 더해 독주 비올라가 관현악 안에서 선명하게 들리는 조건을 마련했다.

작곡 배경과 초연

Sir Thomas Beecham은 1928년 Lionel Tertis를 위한 비올라 협주곡을 Walton에게 제안했다. Walton은 Amalfi에서 곡을 완성했고, Christabel McLaren에게 헌정했다. Tertis는 처음에 작품이 지나치게
현대적이라고 판단해 악보를 돌려보냈다 . 이후 초연자가 정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기록이 갈린다. Walton Trust와 BBC가 전하는 경로는 BBC의 Edward Clark가 Paul Hindemith에게 악보를 보내는 것이고, Tertis의 회고는 자신이 Hindemith를 추천했다고 설명한다. 두 기록은 1929년 초연의 독주자가 Hindemith였다는 사실과는 일치한다.

1929년 10월 3일 Queen’s Hall 초연에서는 Hindemith가 독주하고 Henry Wood Symphony Orchestra를 Walton이 지휘했다. 초연 직전 관현악 파트에 오류가 있어 Walton이 밤새 수정했고 리허설 시간도
제한적이었다는 회고가 남아 있다. Walton은 훗날 Hindemith의 연주를 기교적으로 뛰어나지만 거칠고
거리낌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 증언은 당시 독주부가 매끈한 음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강한 리듬감과
성격을 요구했다는 초연의 인상을 전한다.

Tertis는 초연을 들은 뒤 자신의 판단을 바꾸어 작품을 받아들였고 , 이후 Liège와 Worcester를 포함한 여러 무대에서 연주했다. 1961년 개정판은 1962년 1월 18일 Royal Festival Hall에서 John Coulling,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Sir Malcolm Sargent의 연주로 처음 소개되었다 . 개정판이 이후 공연과 녹음에서 널리 쓰였지만, 2006년 Lawrence Power처럼 원판 편성을 선택한 연주도 있다.

악장 구성

I. Andante comodo

첫 악장은 느리고 사색적인 흐름으로, 비올라의 중음역이 첫 선율을 제시한다. 약음기를 쓴 현악기와 낮은 목관이 바탕을 만들고, 독주 비올라가 긴 선율을 이어 간다. 이 선율은 오보에를 비롯한 관현악으로 옮겨가며, 비올라는 높은 음역의 장식으로 다시 합주 속에 들어간다. Michael Kennedy가 소개한 분석처럼 느린 진행은 두 차례의 빠르고 극적인 폭발로 흔들린다. 긴 호흡과 갑작스러운 리듬ㆍ금관의 압력이 교차하면서 첫 악장이 한 가지 정서에 머물지 않게 한다.

II. Vivo, con molto preciso

두 번째 악장은 짧고 빠른 스케르초다 . con molto preciso라는 지시는 속도보다 정확한 움직임을 요구하며, 짧은 동기와 잦은 박자 변화, 날카로운 화성이 결합하고 독주와 관현악이 빠르게 교환된다. 비올라는 긴 노래를 이어 가는 대신 짧은 패시지와 불규칙한 강세를 통제하며 움직인다. 이 악장은 중음역의 어두운 선율을 중심에 둔 첫 악장과 대비되면서 , Walton이 비올라에 기민한 리듬 악기의 역할도 부여했음을 보여 준다.

III. Allegro moderato

가장 긴 피날레는 바순의 머뭇거리는 주제로 시작하고, 독주 비올라가 피치카토 현악 위에서 그 흐름에 합류한다. 이어 목관과 현악의 성부가 차례로 겹치며 관현악 푸가에 가까운 누적을 만든다. 비올라는 긴 칸타빌레 선율과 리듬적인 패시지를 오가므로, 독주와 합주의 경계가 계속 달라진다. 마지막에는 첫 악장의 주요 선율이 돌아와 피날레의 추진력과 초기의 내성적인 정서를 한데 묶는다. 종결은 새로운 기교를 덧붙이는 방식보다, 세 악장에 흩어져 있던 선율과 리듬을 회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판본과 독주부의 선택

1929년 원판은 더 많은 목관과 저음 금관을 사용해 관현악의 밀도가 높고 어두운 색채를 만든다. 1961년 개정판은 하프를 추가하고 목관과 금관의 수를 줄여 독주 비올라의 중음역과 관현악의 세부 교환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 차이는 음량의 크기만이 아니라, 첫 악장에서 비올라의 긴 선율이 합주 속으로 스며드는 정도와 피날레의 대위가 겹쳐 들리는 정도에도 영향을 준다.

Frederick Riddle이 연주 과정에서 수정한 독주 파트는 Walton의 승인과 출판 반영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2002년 William Walton Edition 12는 원래 독주 파트와 Riddle의 수정본을 함께 제시한다. 따라서 실제 판본 선택은 관현악 개정과 독주부의 두 버전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다.

연주와 녹음의 맥락

Walton Trust의 녹음 목록에는 Frederick Riddle과 Walton이 London Symphony Orchestra와 함께한 1937년 녹음, William Primrose와 Walton이 Philharmonia와 함께한 1946년 녹음이 포함되어 있다. Classical Music은 Primrose의 1946년 기록을 원판 편성의 어둡고 밀도 높은 음향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소개한다. 이후 목록에는 1968년 Yehudi Menuhin, 1987년 Nigel Kennedy, 1992년 Nobuko Imai,

1994년 Yuri Bashmet, 2002년 Maxim Vengerov의 녹음이 이어진다. Menuhin과 Vengerov처럼 바이올리니스트가 비올라를 연주한 기록은 비올리스트의 녹음과 비교할 때 주자의 악기 배경이 음색과 프레이징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BBC는 이 협주곡을 오늘날 비올라 협주곡 레퍼토리의 핵심 작품으로 소개하며, Tertis의 재수용과 후대 녹음은 그 위치가 한 번의 초연보다 긴 연주사를 통해 굳어졌음을 보여 준다.

주요 자료

William Walton Trust, “Concerto for Viola and Orchestra (1928–9, 61)”: 작곡ㆍ헌정ㆍ초연ㆍ
1961년 개정ㆍ악장ㆍ편성ㆍ출판ㆍ녹음 목록
William Walton Trust, “Walton’s Viola and Violin Concertos”: Beecham의 제안, Tertis와 Hindemith의 초연 경로, 초연 회고, 개정판의 의미
Classical Music, “A guide to Walton’s Viola Concerto”: Tertis의 거절과 재수용, 1929년 원판과 1961년 개정판의 음향, 녹음 평가
BBC Radio 3, Record Review: Beechamㆍ Tertisㆍ Hindemith 연표와 레퍼토리 수용

James F. Dunham, “The Walton Viola Concerto”: 작곡 과정, Hindemith의 영향, 초연 준비와 독주부 편집의 학술적 대조
Rice University thesis record: 녹음사와 비올라 연주 관행의 연구 맥락
William Walton Trust orchestral catalogue: 작품 목록과 출판 체계